

한반도 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유형과 의미*

이 종 민**

목차

머리말

I. 국내 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유형과 특징

II. 중국 청화백자의 유입양상과 출토품의 의미

맺음말

머리말

조선백자의 발달과정에서 중국의 明·清代 도자는 직접, 간접적으로 조선의 도자조형 형성에 영향을 주어 왔다. 이러한 영향관계의 단초는 일단 중국에서 제작된 도자가 한반도에 유입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 명·청대에 제작된 여러 유형의 도자 중에서 국내소비가 가장 많았던 것은 청화백자였다. 그것은 문헌기록이나 실제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즉, 중국산 청화백자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32-G00012).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는 품질과 환경에 따라 이를 선호하고 사용했던 다양한 계층들에게 직접 소비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조선에서 제작된 청화백자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상황들은 조선시대 도자사 연구 혹은, 조선도자의 대외교류를 연구했던 많은 선행연구에서 상당한 성과가 축적된 상태이다.¹⁾

이렇듯 청화백자와 관련한 여러 관심사항 중에서 필자가 각별히 주목을 하는 것은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중국산 청화백자의 제작지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이다. 고민의 출발점은 한반도 출토의 중국산 청화백자 제작지가 대부분 江西省의 景德鎮窯로 인식되어 왔던 상황 속에서, 경덕진요가 아닌 다른 지역의 수입품일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元末부터 청화백자를 생산했던 경덕진요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운영체제, 최근까지 청화백자의 최대생산지라는 위상으로 인해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또한 중국내의 타 지역 생산품에 대한 정보 부족과, 새로 추가된 자료를 미처 파악할 수 없었던 시간적 공백은 경덕진요 이외의 생산품에 대한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서 발견된 중국산 청화백자 자료는 이러한 점에서

1) 방병선, 「17-18세기 동아시아 도자교류사 연구」, 『美術史學研究』 第232號, 韓國美術史學會, 2001, 131-155쪽; 윤효정, 「朝鮮 15·16세기 靑畫白磁의 製作과 使用-문헌자료와 요지출토품을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第250·251號, 韓國美術史學會, 2006, 315-360쪽; 金美景, 「19世紀 朝鮮白磁에 보이는 清代 磁器의 影響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李炫姪, 「朝鮮 前期 白磁에 보이는 明代 磁器의 影響」,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金英媛,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中國 陶磁의 內容과 性格」, 『中國陶磁』, 국립중앙박물관, 2007, 356-379쪽; 방병선, 「皇帝·文人·景德鎮-清朝 康·雍·乾期 靑花白瓷研究」, 『美術史學』 제22호, 미술사교육학회, 2008, 295-326쪽; 진승창, 「조선초기 명나라 청화백자의 유입과 수용 고찰」, 『美術史學研究』 第264號, 韓國美術史學會, 2009, 35-62쪽; 장효진, 「中國 靈芝草花文 靑畫白磁의 流行과 傳播: 18-20世紀初 朝鮮과 日本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재해석할 여지를 갖고 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한반도 출토의 중국산 청화백자의 특징과 제작시기, 제작지를 분석하고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 이러한 자기류가 국내에서 소비되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최근까지 국내에서 출토된 명·청대의 청화백자를 유적별로 구분하여 관찰하고 이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 기초위에서 청화백자의 유입기록과 실제 출토유물간의 상관관계를 살핀 후, 어떠한 배경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규명할 것이다.²⁾

I. 국내 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유형과 특징

중국산 청화백자가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적으로는 요지, 분묘, 사지, 한성부내 소비유적, 관방유적 등 여러 성격의 유적이 망라되어 있다. 성격을 달리하는 이들 유적에서 발견된 청화백자는 기종, 생산시기, 생산지 면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유적별로 구분하고 대표적 사례를 추출하여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1. 요지 출토품

명·청대의 중국 청화백자는 경기도 광주의 분원관요에서도 여러 점이 확인되었다(표 1). 이들은 소비유적에서 발견되는 다른 수집품들과는 다르게 생산지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때문에 조선의 청화백자 제작과 관련하여 그 의미도 다르다.

2) 영향관계에 대한 내용은 이미 많은 글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본 연구의 취지와도 다르므로 논외로 한다. 관련 내용은 주 1)의 글을 참고할 것.

〈표 1〉 요지 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사례

출토지 성격	출토유구	출토유물명 (백자청화 생략)	추정 제작시기	추정 제작지
요지	광주 도마리 1호	봉황당초문접시편 2점, 모란당초문발편 1점, 청화초문발편 3점	成化-弘治년간	경덕진 민요
	광주 우산리 9-3호	당초문발편 2점	成化년간	경덕진 민요
	광주 우산리 15호	소나무문발편 1점	弘治년간	경덕진 민요
	광주 번천리 5호	당초문발편 2점	正德-嘉靖년간	경덕진 민요
	광주 번천리 9호	초문발편 1점	正德-嘉靖년간	경덕진 민요
	광주 관음리 22호	당초문발편 1점	正德-嘉靖년간	경덕진 민요
	광주 대쌍령리 1호	당초문발편 1점	正德-嘉靖년간	경덕진 민요

광주 도마리 1호 요지에서 발견된 중국산 청화백자로는 <백자청화봉황당초문접시편>, <백자청화모란당초문발편>, <백자청화초화문편> 등 여러 점이 수습되었다(사진 1).³⁾ 발과 접시 중심으로 발견된 유물의 내외면에는 봉황당초문, 모란당초문[纏枝蓮花文], 초화문 등이 시문되어 있는데 완성도와 그림의 상태는 조금씩 다르다. 얇은 기벽과 희미한 윤곽선, 청화안료의 부드러운 발색은 成化~弘治年間(1465~1505)에 제작된 사례들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물들이 수습된 도마리 1호 요지에서는 <「乙丑八月」銘도봉>이 함께 발견됨으로 인해 가마운영시기를 1505년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⁴⁾ 이점은 가마의 운영시기와 중국산 청화백자의 생산시점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작상태와 품질면에서 경덕진 민요산으

3) 國立中央博物館, 『廣州郡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 報告書-道馬里 1號 窯址-』, 1995, 108쪽.

4) 國立中央博物館, 앞의 보고서(1995), 121-124쪽 ; 강경숙,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아트, 2005, 420-421쪽.

로 보는 견해⁵⁾에 동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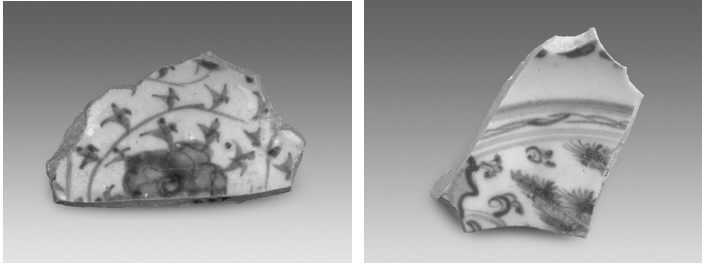


사진 1. 백자청화모란당초문편, 사진 2. 백자청화편, 明, 광주
명, 광주 도마리 1호, 국립중앙 우산리 15호,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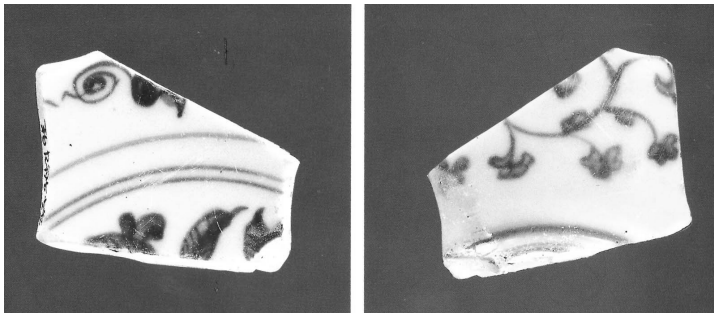


사진 3. 백자청화편, 明, 광주 우산리 9-3호, 이화여자대학교 박
물관

광주 우산리 15호와 9-3호 발굴조사에서도 청화백자편이 수습되
었다.⁶⁾ 이들중 우산리 15호에서 발견된 청화편은 蟹爪描의 소나무 수

5) 진승창, 「조선초기 명나라 청화백자의 유입과 수용 고찰」, 『美術史學研究』 第
264號, 2009, 35-62쪽.

6)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展-附 廣州牛山里9號窯址
發掘調査報告-』, 1993.

지법이 돋보이는데(사진 2) 이러한 묘사방식은 조선의 제작품으로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백자청화송죽문 「弘治二年」 명호>(1489년)와 수법면에서 유사하다.⁷⁾ 이 소나무 문양은 江西省 南昌市 南站 工商所에서 출토된 弘治년간(1488-1505) 제작의 <백자청화송죽문 반>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려져 있어 연대추정에 도움이 된다.⁸⁾ 또 우산리 9-3호에서 수집된 <백자청화편>은 보고서에서 폐기된 국내산 청화백자일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⁹⁾ 내면바닥의 절지문, 외면의 당초문은(사진 3) 成化년간(1465-1487)의 제작사례에 더 가깝다(사진 4와 비교). 특히 이 파편의 청화발색은 같은 우산리 9-3호에서 수집된 국내산 청화백자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15세기 후반경의 경덕진 민요산 청화백자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외에 변천리 5호와 9호, 관음리 22호, 대쌍령리 1호에서 발견된 청화백자들은¹⁰⁾ 문양의 소재나 묘사방식에서 正德~嘉靖년간(1506-1566)에 생산된 제품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들 조선의 광주 관요들은 16세기 중반 전후에 운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경덕진 민요의 청화백자는 가마운영시기에 유입된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요지에서는 함께 발견된 중국 청화백자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조선의 청화백자가 보이지 않

7) 호암미술관, 『朝鮮前期國寶展-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2)』, 1996, 182쪽의 도판 132 참조. 일반적으로 <백자청화송죽문 「홍치2년」 명호>가 제작된 15세기 후반경에는 중국풍의 문양을 벗어나 조선 화단의 표현방식이 청화백자에 반영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세부적인 면에서 중국청화백자풍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8) 王莉英編, 『中國陶瓷全集』 12 明(上), 錦繡出版社, 2001, 128쪽, 261쪽 참조.

9)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앞의 보고서(1993), 부록 부분 34쪽.

10) 관련 도판은 국립대구박물관, 앞의 도록(2004) 115쪽,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韓國道路公社, 『廣州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查報告-樊川里 5號·仙東里2,3號-』, 1986, 119쪽,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경기도 광주시, 『廣州 樊川里 9號 朝鮮白磁窯址 발굴조사보고서』, 2007, 235쪽의 도판 참조.

고 있어¹¹⁾ 그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분묘 출토품

조선시대의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중국 청화백자는 수 없이 많은 조선 분묘의 수에 비해 적은 비율을 보인다(표 2). 그동안 알려진 자료와 더불어 최근 학계에 보고된 출토품들을 대상으로 그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다.

분묘 출토품중 많이 인용되는 자료로는 청주 용정동 II지구 103호 토광묘 출토품이 있다.¹²⁾ 이 <백자청화전지당초문발>은 내면중앙바닥에 모란절지문, 외면에 纏枝唐草文을 표현하였다(사진 4). 청화안료의 불투명한 발색상태와 문양의 묘사방식은 이 발이 명의 弘治~正德년간(1488-1521)의 제작방식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양식을 보여주는 사례는 화성 와우리 15호 토광묘 출토품이다. 와우리의 토광묘에서는 굽내면에 ‘別’자가 새겨진 조선 전기의 백자 접시 및 종지와 더불어 중국의 <백자청화서수문발> 2점이 함께 발견된 바 있다.¹³⁾ 이 발은 내면바닥에 불가사리로 추정되는 瑞獸를 그리고, 내측면 여섯 곳에는 도안화된 나무형태의 문양을 배치하였다. 주목을 끄는 것은 외면의 문양이다. 구연부의 보조문양대를 제외하면 문양의 소재와 표현방식은 청주 용정동 출토품과 여러 면에서 유사점을 지닌다(사진 5).

11) 진승창, 앞의 논문(2009), 43쪽.

12) 韓國文化財保護財團·韓國土地公社, 『淸州 龍岩遺蹟』(I)(II), 2000,

13) 재단법인 기호문화재연구원·경기도속도로(주), 『華城 臥牛里 遺蹟 I』, 2009, 67-74쪽.

〈표 2〉 분묘 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사례

출토지 성격	출토유구	출토유물명 (백자청화 생략)	추정 제작시기	추정 제작지
분묘	청주 용정동 103호 토광묘	당초문발 1점	弘治-正德년간	경덕진 민요
	화성 와우리 15호 토광묘	서수문발 2점	弘治-正德년간	경덕진 민요
	수원 이의동 6-1지점 3호 토광묘(추정)	보상당초문발 1점	正德-嘉靖년간	경덕진 민요
	파주 당동 8지점 조선 2호 토광묘	영희도문발 1점	成化-弘治년간	경덕진 민요
	구미 진평동 IV-11호	변체어의두문접시 1점	成化-弘治년간	경덕진 민요
	淑愼公主묘	大明嘉靖年製당초문합,大明萬曆年製용봉문방형합,大明萬曆年製연관문호,大明萬曆年製화조문합, 칠보국화문유개합 등 총 7점	嘉靖-萬曆년간 ?	
	부천 중구 和柔公主묘	연화문유개합, 원통형합, 잔, 접시 등 7점	淸 隆慶년간	경덕진

다만 선명한 청화색조와 구연 내부의 梵字로 이루어진 문양대를 통해 약간의 시기적 차이를 느낄 뿐이다. 크게 보면 이 유물은 弘治~正德년간(1488-1521)에 해당하는 제작품으로 보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동반유물인 ‘別’자명 조선백자접시의 국내제작시기 등을 고려하면¹⁴⁾ 이 청화백자발은 16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앞의 두 예처럼 구연이 외반한 발의 형식을 가진 또 다른 출토품이 수원시 이의동 6-1지점의 토광묘에서도 출토되었다. 반구형의 흑갈유병과 함께 수집된 <백자청화보상당초문발>은 내면에 纏枝靈芝文을, 외면에는 보상당초문이 짙차게 시문되어 있다(사진 6).¹⁵⁾ 윤곽선을 따로 그리지 않고 문양을 곧바로 묘사한 표현방식은 주로 正

14) ‘別’자명문은 ‘天·地·玄·黃’명문보다 늦은 다음 단계에 제작되었으며 주로 광주 관음리, 정지리의 요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別자명은 16세기로 보는 것이 현재 학계의 정설이다. 강경숙, 『韓國陶磁史』, 예경, 2012, 457-460쪽.

15) 재단법인 한울문화재단연구원·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문화유적Ⅱ』, 2011, 146-149쪽.

德~嘉靖년간(1506-1566)의 일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유물은 16세기 전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도 좋다.

과주 당동리 8지점의 조선 2호 분묘에서는 앞선 예들과 유사한 기형에 아이들이 무리지어 노는 장면을 그린 <백자청화영희도문발>이 수집되었다. 도기장군, 청동제발, 청동제시저, 조선백자접시와 종지 등이 함께 발견된 이 무덤은 매장품으로 볼 때 상당한 경제력의 소유자였으리라 짐작된다. 청화백자의 문양은 내면바닥 중앙에 정원에서 노는 2명의 어린아이를, 외면에는 버드나무와 대나무를 심은 정원에서 8명의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였다(사진 7).¹⁶⁾ 영희



사진 4. 백자청화전지당초문발, 明, 청주 용정동 103호 토광묘, 高 8.0cm



사진 5. 백자청화서수문발, 明, 화성 와우리 15호 토광묘, 구경 15.3cm

16) 京畿文化財團 京畿文化財研究院·京畿都市公社, 『汶山 堂洞里 遺蹟-문산 LCD 지방산업단지(당동지구) 문화재 시·발굴조사-』 본문편, 2009, 167-173쪽.



사진 6. 백자청화보상당초문발,
 明, 수원 이의동 6-1지점 3호
 토광묘(추정), 구경 15.3cm



사진 7. 백자청화영희도문발,
 明, 파주 당동리 8지점 조선 2
 호묘, 구경 15.4cm

도는 명초인 영락제(1403-1424)때부터 그려진 소재였으나 부드러운 선묘에 약간의 변짐현상을 보이는 문양표현은 成化~弘治期(1465-1505)에 제작된 사례와 가장 유사하다.¹⁷⁾

색다른 문양소재를 보여주는 발견 예는 구미 진평동 IV-11호의 조선분묘유적 출토품을 들 수 있다.¹⁸⁾ 내면에 변체여의두문을 묘사한 이 접시는 바닥에 여의두문양을 네 방향으로 묘사하고 측면의 여덟면 중앙에 팔보문을 그려 넣었으며 외측면에는 纏枝唐草文을 짙차게 메웠다(사진 8). 이와같은 소재와 문양표현은 성화~홍치기(1465-1505)에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유물은 15세기 후반으로부터 16세기 초반경에 국내에 전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⁹⁾

17) 熊寥, 『中國歷代青花畫典(人物, 動物卷)』, 中國美術學院出版社, 1995, 80-81쪽.

18) 국립대구박물관, 『우리 문화속의 中國 陶磁器』, 2004, 183쪽.

한편 조선시대의 분묘출토품중에는 왕실과 관련된 유적출토품의 사례도 있다. 和柔公主묘는 부천 중구에 소재한 무덤으로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이장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화유공주(1740-1777)는 英祖(1725-1776)의 10번째 딸로 昌城尉 黃仁黈(1740-1802)과 결혼하였으나 일찍 卒하였다. 이 무덤에서는 옥제석류잠, 금은제석류잠 등과 더불어 <백자청화연화문유개합> 등 7점의 청화백자 및 백자, 황채장미문병 등이 확인되었다. 부인보다 오래 살았던 남편 황인점은 1776년부터 생애 말년까지 수차에 걸쳐 進賀兼射恩使, 冬至兼射恩使, 聖節進射恩使 등의 자격으로 청에 다녀왔다. 이들 유물은 본인이 18세기 후반경 청으로부터 가져온 것을 넣어 준 것으로 판단된다.²⁰⁾ 황인점의 청나라 방문 시기를 고려한다면 이들 제품의 생산시기는 乾隆期(1736-1795) 후반의 경덕진산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서 이 유개합은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 문양이 섬세하다(사진 9).



사진 8. 백자청화변체여의두문접시, 明, 구미 진평동, 구경 15.2cm



사진 9. 백자청화연화문유개합, 淸, 和柔公主墓, 높이 10.0cm

19) 李炫姬, 앞의 논문(2007), 162쪽의 도 50 참고. 이 논문에서는 외부에 그려진 문양의 사례가 弘治期の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20) 국립대구박물관, 앞의 도록(2004), 184쪽 참고.

이밖에 경기도 고양시 지능리의 淑愼公主墓에서도 중국산 청화백자가 출토되었다고 전한다. 숙신공주는 효종의 장녀로 1635년에 태어났으나 1637년경에 일찍 추하였다. 이 무덤에서는 <백자청화 「大明嘉靖年製」 명당초문합>, <백자청화 「大明萬曆年製」 명용봉문방형합>, <백자청화 「大明萬曆年製」 명연판문호>, <백자청화 「大明萬曆年製」 명화조문합>, <백자청화칠보국화문유개합> 등 총 7점이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진이 공개된 바 없어 정확한 형태를 알기 어렵다.²¹⁾ 다만 명칭을 보면 명대의 嘉靖~萬曆期(1522-1619)의 명문이 굵게 쓰여 있어 명말기의 경덕진요 제품이 부장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분묘출토품들은 특징이 발견된다. 우선 일반 민묘에서는²²⁾ 대부분 중국제 청화백자鉢이 한 두점 확인되고 있는 것에 비해 왕실가족의 분묘에서는 신분을 상징하듯 여러 점의 정세품이 부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 대부분의 제품은 주로 경덕진의 민요산 제품으로 추정되는데 제작시기는 成化年間에서 萬曆年間에 이르기까지 약 130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예가 많았다. 이것이 당시 도자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3. 사지 출토품

조선시대의 사찰유적 출토품중 중국산 청화백자가 발견된 사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중에 제작연대를 이해할 수 있는 예는 양주 회암사지, 서울 원각사지, 삼천사지 출토품들이 있다(표 3).

21) 국립대구박물관, 위의 도록(2004), 183쪽 참고.

22) 여기서 민묘란 왕실가족묘의 상대적 의미로 사용하였다. 묘주는 일반적인 토광묘중에서도 상당한 경제력을 갖추었던 제지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 3〉 사지 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사례

출토지 성격	출토유구	출토유물명 (백자청화 생략)	추정 제작시기	추정 제작지
사지	양주 회암사지	당초문발편, 보상당초문접시편 1점	弘治년간	경덕진 민요
	서울 원각사지	大明○○명초화문편 1점	明	?
	서울 삼천사지	초화문완 1점	正統-景泰년간	경덕진 민요

고려 말에 세워진 사찰로 조선 전기에 왕실의 비호를 받아 대가람을 이루었던 회암사지에서는 <백자청화당초문완편> 여러 점과 <백자청화보상당초문반편>이 수습되었다. 이들 유물의 특징은 짙은 청화선으로 문양의 윤곽선을 그리고 내부에는 옅은 청화로 여백을 메웠다는 점이다(사진 10).²³⁾ 이러한 표현방식은 흔히 홍치기(1488-1505)에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이 유물이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반 사이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알려준다.

고려시대에 융성을 이루다 조선초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의 삼천사지에서는 소량의 조선백자와 더불어 <백자청화초문완편>이 수습되었다. 내면에 草文과 외면에 纏枝捧八吉祥文이 표현된 이 파편은 청화안료를 뭉게 써서 간단하고 빠르게 시문한 문양이 표현되어 있다(사진 11). 사찰의 운영시기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중국에서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正統~景泰年間(1436-1456)에 제작된 유물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²⁴⁾

사찰출토품들은 발견수량이 적어 일정한 경향성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 다만 명대 초·중기의 제작품 이외에는 발견된 예가 없어 사찰의 명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요지나 민묘에서 보이는 시기적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23) 국립대구박물관, 앞의 도록(2004), 113쪽.

24) 方李莉, 『景德鎮民窯』, 人民美術出版社, 2002, 321쪽의 圖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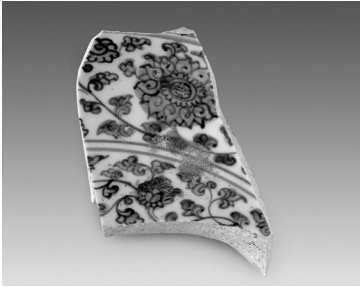


사진 10. 백자청화보상당초문반편, 명, 양주 회암사지, 경기도박물관

사진 11. 백자청화초문완편, 명, 삼천사지, 서울역사박물관

4. 한성부내 소비유적 출토품

최근 서울시내에는 발굴조사가 급증하면서 조선시대의 도자소비성향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었다. 그중에서 조선에 수입된 중국산 청화백자의 사례는 서울 시청사부지, 종묘현장, 광화문 광장, 청계천 광통교, 청진동 5지구, 동대문운동장, 경희궁, 을지로 및 장교동 등의 발굴조사 출토품들은 윤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표 4).

〈표 4〉 한성부 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사례

출토지 성격	출토유구	출토유물명 (백자청화 생략)	추정 제작시기	추정 제작지
한성부내 소비지	시청사 부지	당초문발 1점, 영지화훼문접시 1점	明~淸	경덕진 민요
	종묘IV지구	각종 청화편	明	
	광화문 광장	각종 청화편	萬曆년간	경덕진 민요
	청진동 5지구	각종 청화편	明~淸	경덕진 민요 북건성 ?
	동대문운동장	각종 청화편	明~淸	경덕진 민요 북건성 제요
궁궐	경희궁	각종 청화편	明~淸	경덕진
미상	서울 장교동 45-11번지	괴순접시, 연당초문완, 연당초문발 각 1점	成化년간	경덕진 민요
	서울 을지로 2가 193번지	괴수문화형전접시, 괴수문접시, 연당초문완, 화문잔, 당초문발 각1점	弘治-正德년간	경덕진 민요

* 한성부 유적의 경우 유물의 시기, 제작지가 다양하여 포괄적으로 서울

서울시청사 부지발굴조사에서 수습된 <백자청화당초문발편>은 얇은 기벽에 문양은 짙은 윤곽선을 부드러운 회청으로 메운 발색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성화~홍치년간(1465-1505)의 製磁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사진 12).²⁵⁾ 또 광화문 광장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청화백자편들중에는 청화안료를 짙게 써서 문양윤곽선과 내부의 색조가 서로 들러붙은 양상을 보이는 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굽 뒤에 ‘大明萬曆年製’라는 명문이 쓰여 있어 만력년간(1573-1619)에 생산된 자기가 유입되었음을 알게 해준다(사진 13).²⁶⁾

무엇보다도 주목을 끄는 것은 청진동 5지구의 출토유물들이다. 청진동 5지구는 경복궁의 동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핵심적인 궁궐이나 관아 등과는 무관한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²⁷⁾ 퇴적층 중 III~IV기층에서는 조선 전기의 백자, 청화백자와 더불어 다양한 중국 자기가 수집되었다. 그중 중국 청화백자는 송죽문완, 화훼문완, 범자명완, 모란문접시 등 생활용기가 다수를 이룬다. 중국의 청화백자는 弘治期(1488-1505)로 추정되는 유물들을 포함하여 16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예들이 많이 보이며 여러 명문자료들도 확인되고 있다. 이들 명문자료중에서 굽에‘大明成化年製’라 쓰여진 파편들은 문양패턴과 표현양식으로 파악할 때 성화시기(1465-1487)에 제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萬曆~天啓年間(1573-1627)에 만들어진 복제품일 가능성이 높아 흥미로움을 더한다(사진 14-1,2). 또 명문자료중에는 굽에‘万福收同’이라 쓰여진 유물도 발견되었는데(사진 15) 이

25) 재단법인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군기시터 유적』, 2011.

26) 재단법인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육조거리 유적』, 2011.

27) (재)한울文化財研究院, 「종로 청진구역 제5지구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0.



사진 12. 백자청화당초문발편, 明, 서울시청사부지 출토



사진 13. 청화백자 일괄, 明, 서울 광화문 광장 출토



사진 14-1. 백자청화초문완, 明, 서울 청진동 5지구 출토



사진 14-2. 大明成化年製 명문, 사진 14의 뒷면



사진 15. 백자청화'萬福收同'명송문완, 明, 서울 청진동 5지구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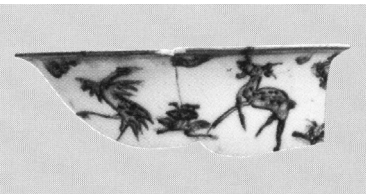


사진 16. 백자청화송학록문완편, 明, 동대문운동장 출토



사진 17. 백자청화송학록학문완, 明, 1496년, 江蘇省 無錫縣 吳氏묘 출토



사진 18. 백자청화쌍희자문완, 淸, 동대문야구장 출토

명문은 嘉靖~崇禎年間(1522-1644) 사이의 표식으로 알려져 있다.²⁸⁾ 그런데 그릇 외면에 묘사된 소나무문에서 짙은 윤곽선 내부에 덧대어 메운 안료가 번진 양상을 고려하면 이 완은 가정~만력기(1522-1619)의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 청화백자가 대량으로 수집된 또 하나의 유적은 동대문 운동장이다. 2008년 동대문 야구장과 축구장의 발굴조사에서는 13,000여 점에 달하는 자기가 수습되었으며 조선의 시대별 도자류와 중국, 일본의 자기들이 상당량 출토되었다.²⁹⁾ 그중에서 연대추정이 가능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청화백자는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유입된 것이 확인되었다.³⁰⁾ 제작연대와 제작지의 추정이 가능한 사례로는 變體如意頭文, 寶相唐草文, 蓮池文, 寶楮文, 波濤文, 松竹梅文, 松鶴鹿文, 獅子繡球文 등이 명대의 특징을 반영하며 雙喜字文, 靈芝花卉文, 四君子文, 寶相華文, 纏枝瑞果文 등은 청대의 문양임을 보여준

28) 李正中·朱裕平, 『中國古瓷銘文』, 山東美術出版社, 2006, 76-77쪽.

29) 서울특별시·재단법인 중원문화재단연구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부지 발굴조사 동대문 운동장 유적』 I 본문편, 2011.

30) 김은경, 「V. 고찰, 나. 축구장·야구장 출토 동국 도자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부지 발굴조사 동대문 운동장 유적』 I 본문편, 2011, 442-450쪽.

다. 이 중에서 변체여의두문편은 구미 진평에서 수집된 유물(사진 8)과 같은 예로 보이며, 보상당초문들은 弘治~正德년간(1488-1521)에 제작된 예들과 같은 양상을 띤다. 또 축구장에서 수집된 송학록문편(사진 16)은 弘治 9년(1496)의 기년을 갖는 江蘇省 無錫縣 吳氏묘 출토의 <백자청화송학록문완>(사진 17)과 유사 양식을 보이고 있어 흥치기(1488-1505)즈음에 제작되었음을 알게 해준다.³¹⁾

동대문 운동장의 청대 유물중 <백자청화쌍희자문완>은 여러 점으로 유물간에 질적 차이가 보이나 기본적인 문양은 외면 세 곳에 雙喜字를 배치하고 여백을 흐트러진 변형당초문으로 채운 것이다(사진 18). 이와 같은 유물은 실제 福建省의 德化窯와 漳州窯 등에서 18세기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²⁾ 또 완, 잔, 접시에 영지화훼문을 묘사한 유물들은 밝은 태토에 선명한 발색의 문양이 보이는 예와 미세하게 거친 태토에 옅은 회청색의 발색을 보이는 예가 공존한다(사진 19). 이 유물을 언급한 연구성과에 의하면 전자는 경덕진 민요에서, 후자는 복건성 일대의 요장에서 각각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작시기는 18세기 중·후반경이라 한다.³³⁾

31) 張柏, 『中國出土瓷器全集』 7 江蘇·上海, 科學出版社, 2008, 204쪽의 도판 204 참고.

32) 徐本章, 「式談德化窯青花磁裝飾藝術及其影響」, 『德化磁研究文集』, 華星出版社, 1993, 265-267쪽; 福建省博物館, 『漳州窯』, 福建人民出版社, 1997, 도판 46-1 坪水窯址調查採集器物 참조.

33) 장효진, 「中國 靈芝草花文 靑畫白磁의 流行과 傳播-18-20世紀初 朝鮮과 日本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49-50쪽; 陳建中, 『德化民窯青花』, 文物出版社, 1999.



사진 19. 백자청화영지화훼문완, 淸, 동대문야구장 출토



사진 20. 백자청화보상화문편, 淸, 동대문야구장 출토

동대문운동장에서 여러 점이 수집된 보상화문과편들은 정세한 태도를 기본으로 선명한 발색의 보상화문과 당초문이 마치 유럽의 紋章처럼 묘사되어 있다(사진 20). 보상화문은 청대 嘉慶년간(1796-1820)에 경덕진 민요에서 유행한 문양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유물들은 제작시점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국내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대문야구장에서 출토된 예중 <백자청화초문완편>은 어두운 회청색의 청화문양위에 암청색을 띠는 유약이 시유되어 있다(사진 21). 청화초문은 경덕진 민요에서 제작되었으나, 이 유물은 釉胎와 거친 문양상태를 고려할 때 복건성의 羅源窯 생산품과 거의 일치한다³⁴⁾ 따라서 이 유물은 경덕진산이라기 보다는 라원요와 같은 복건성 일대의 청대 가마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겠다.

이밖에도 서울의 소비유적에서 출토된 중국 청화백자의 사례는 많다. 을지로 2가 193번지 출토의 괴수문화형전접시와 연당초문잔 등은 명 중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중구 장교동 45-11번지 출토의 괴수

34) 이와 동일한 유물 두 점이 태안 마도해역의 탐사에서도 발견되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마도해역 탐사보고서』, 2011, 139쪽. 라원요는 복건 羅源縣 八井村에 위치한 가마로 송대부터 청대까지 요업을 하였으며 청대에는 청화완을 집중 생산하였다. 동대문운동장 수집 이 완편은 기형, 문양소재, 안료 면에서 완전히 일치한다. 라원요는 출간된 조사보고서가 없으나 북경고궁박물관의 도편표본실의 자료가 생산지 추정에 도움을 준다.

문이나 연당초문이 표현된 유물들은 成化년간(1465-1487)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종묘앞길 T4지구 발굴에서 채집된 유물은 홍치~정덕기(1488-1521)의 청화백자에서 볼 수 있는 특징과 닮아 있다³⁵⁾



사진 21. 백자청화초문완편, 淸, 동대문야구장 출토



사진 22. 백자청화 「大明宣德年製」 명발, 명, 용인 임진산성, 경기도박물관

이와같은 한성부내의 여러 생활유적 출토품들을 통해 조선시대에는 거의 전 기간동안 중국의 청화백자가 유입되어 소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시기를 좁혀 본다면 명대 유물의 경우 成化년간(1465-1487)부터 萬曆년간(1573-1619)의 사례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청대 유물은 18세기 이후의 사례들이 많았다. 이와같은 고고학적 결과는 15세기 초반과 17세기에 (왕실을 제외한) 한성부 내에서 중국 청화백자 소비가 적었던 결과를 보여준다. 또 생산지를 살펴보면 경덕진 민요의 제품이 월등하게 많이 있으나 복건지역 제품들도 간간히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복건지역의 도자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 구체적으로 연구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이 지역의 출토예가 더 많이 알려질 것이다.

35)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종묘광장 인근유적 발굴조사-5파현장설명회(회동·제생동천, 건물지)-」, 2010.10.19.

5. 기타 유적 출토품

기타 유적 출토품은 유구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출토사례가 희소한 것을 한데 묶은 것이다(표 5). 이 중에는 간과하기 어려운 유물이 포함되어 있어 몇 예만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표 5〉 기타 유적 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사례

출토지 성격	출토유구	출토유물명 (백자청화 생략)	추정 제작시기	추정 제작지
산성	용인 임진산성	문자명, 초화문, 산수문편 약 10점	明	
성격 미상	양주광사리(분묘추정)	모란문접시, 괴수분발 각1점	明	
	진 서울 (영남대박물관 소장)	大明嘉靖年製명운룡문접시	淸	

백제시대의 유적과 유물을 포함하여 조선시대까지 복합유적의 성격을 보이는 용인 임진산성에서는 발굴을 통해 10여 편의 중국 청화백자가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굽에 ‘大明宣德年製’와 ‘長春佳器’라는 글귀가 쓰여진 자편은 제작지와 연대추정에서 주목을 끈다. 우선 외면에 梵字文이 짙차게 시문된 선덕년제의 파편은 태토와 청화의 발색, 완성도에서 宣德년간(1426-1435)에 경덕진에서 제작된 것이 분명하다(사진 22). 또한 ‘長春佳器’명의 자기는 내면바닥에 초화문을 그리고 굽에는 명문을 써 넣었다. 이 명문이 수록된 제품들은 嘉靖~崇禎년간(1522-1644) 사이에 소량 생산되었으며 네 글자사이에 ‘=’표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사진 23-1,2).³⁶⁾ 미색의 태토와 어두운 청화의 발색, 완성도가 낮은 그림 수준은 이 유물이 경덕진의 민요 제품일 가능성이 보여준다.

36) 李正中·朱裕平, 앞의 책(2006), 79-80쪽.



사진 23-1 백자청화 「長春佳器」
명발편, 明, 용인 임진산성 출토



사진 23-2. 백자청화 「長春佳器」
명발편의 뒷면

양주 광사리 541번지에서 수집된 모란문접시와 괴수문완은 鈎勒法으로 윤곽을 그리고 번지는 듯한 열은 채색을 보이는 모습으로 인해 成化년간(1465-1487)의 제품임을 추측하게 해 주는 유물이다(사진 24). 채색방식과 정교하지 못한 완성도를 고려하면 이 제품은 경덕진 민요에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⁷⁾ 이밖에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으로 서울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백자청화 「大明嘉靖年製」 명운룡문접시>가 있다. 이 유물은 굽에 가정년제라는 명문을 써 놓았으나 청대 康熙帝(1662-1722) 이후의 倣作으로 판단된다(사진 25). 굽 내부의 청화원권 밖에는 ‘무오 선영던것 이뉴늬’이라는 정각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정각은 주로 憲宗대(1835-1849)부터 高宗대(1864-1906)까지 別燔의 고급품에 시도된 방법으로 수입자기에 시도된 예로는 드문 편에 속한다.³⁸⁾

37) 국립대구박물관, 앞의 도록(2004), 116쪽, 182쪽 참조.

38)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 일지사, 2000, 129-133쪽.



사진 24. 백자청화모란문접사·괴수문완, 明, 양주 광사리,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25. 백자청화 「大明嘉靖年製」 명운룡문접시, 淸, 傳 서울, 영남대학교박물관

II. 중국 청화백자의 유입양상과 출토품의 의미

앞 장에서는 국내의 각 유적지에서 어떤 유형, 어느 시기에 제작된 중국산 청화백자가 출토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렇게 출토양상을 파악한 상태에서 본 장에서는 문헌기록과 실제 출토품의 양상을 비교해 보고, 이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중국 청화백자의 유입기록과 국내 출토품과의 관계

국내의 문헌자료중에서 조선시대에 중국 도자가 직접 유입되었거나 유입된 정황을 수록하고 있는 글들은 주로 조선 전기에 몰려 있다. 그중에서도 청화백자의 유입기록은 소수에 불과한데, 사료에 등장하는 사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6).

〈표 6〉 『朝鮮王朝實錄』에 보이는 중국 청화백자의 유입에

治世期		양력년도 (음력월일)	종류·수량	성격
중국	조선			
宣德 1426-1435	世宗 1419-1450	10년 1428.07.19	白磁靑華大盤 5개 小盤 5개	중국 宣德帝 하사 (척서내용)
		11년 1429.01.27	靑畫白磁鍾	중국 사신 金滿 진상
		11년 1429.06.10	磁靑花大鍾 1事	대호군 尹重富 진상
		11년 1429.07.15	靑花磁器, 螺盃	李彬의 아내 진상
		11년 1429.11.02	白磁靑花대접 4	중국 사신 金滿 진상
正統~天順 1436-1464	文宗 1451-1452	12년 1430.07.17	靑花獅子白磁卓器 3卓 靑花雲龍白磁酒海 3	중국 宣德帝 하사 (척서내용)
		즉위년 1450.08.05	靑畫鍾 6事, 畫榼 2事	중국 사신 鄭善 진상
	즉위년 1450.08.06	靑花白鍾 5事, 畫碗子 10 事, 靑畫沙盤 9事, 靑畫臺 盞 1事, 花茶鍾 6事, 靑畫 白堤碗 10事, 靑畫茶鍾 6事	중국 사신 尹鳳 진상	
成化 1465-1487	成宗 1469-1494	6년 1475.05.12	사대부 집은 사치를 일삼 고... 畫器는 중국 것으로 운송이 어려우나 짐집마다 있다... 화기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게 하고...	예문관 봉교 安彭命 상소
		8년 1477.閏02.10	豪富의 집에서는 靑畫器를 다투어 쓴다.	대사헌 金永濡의 왕과 대화문
弘治 1488-1506		8년 1477.閏02.13	중국산 靑畫磁器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적발이 불가 하다... 신칙을 내려달라	대사헌 金永濡의 왕과 대화문
		8년 1477.閏02.14	畫磁器는 토산도 아닌데 중국에서 구해 산다고 하 니... 금단을 행하라	의정부 전지 내용
正德~萬曆 1507-1619	中宗 1506-1544	5년 1510.09.26	사치를 다투어 짐집마다 중국 畫器 사용...	사간 李鐵鈞의 상소 내용

* 이 표에 등장하는 畫器, 靑磁器는 청화백자로 간주함.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구성한 중국 청화백자 관련 사료들은 시기적으로 세종 10년(1428)부터 문종 5년(1510)까지의 것이 거의 전부이다. 기록이 남아 있는 기간도 80여 년간에 불과하며 기록 건수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이다. 비록 기간과 건수는 많지 않지만 이를 통해 조선 초기에 중국 청화백자가 유입되는 양상을 단편적으로나마 이해해 보기로 한다.

우선 <표 6>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청화백자의 유입과정이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으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공식적인 것은 세종조인 1428년부터 문종조인 1450년 사이로 이때에는 명 황제의 하사, 중국 사신의 선물, 내국인의 진상과 같은 선물성격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중국 청화백자의 최종 수혜자가 왕이므로 그 기록을 구체적으로 남긴 것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15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유입기록이 집중되어 있는 점은 선덕제와 세종시기의 친밀했던 외교관계와 함께³⁹⁾ 藩王에 대한 사여나 사신왕래에서 청화백자는 중요한 선물 품목이었음을 알게 해준다.⁴⁰⁾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공식적인 선물성격의 청화백자는 이후의 기록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성종이후 중종 때까지의 기록은 사치풍조를 경계하면서 적은 내용들로 비공식적인 유입과정에 의해 들어온 중국 청화백자가 士家에서 소비되는 현상을 적은 것이다. 내용으로 볼 때, 성종~중종대에는 여러 차례의 강력한 금제조처에도 불구하고 사대부 집에서는 공공연히 쓰고 있어 중국산 청화백자가 얼마나 인기있는 수입품목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사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 청화백

39) 윤효정, 앞의 논문(2006), 319쪽.

40) 세종이후 한동안 뜸하다가, 1450년 문종 원년에 관련기사가 등장한 것은 세종 승하에 대한 조문 및 새 왕에 대한 추인으로 중국 사신단이 방문한 것 때문이었다. 『文宗實錄』 卷3, 文宗 元年 8月 3日, 5日, 6日 기사.

자는 세종 말경까지만 해도 왕실전용의 기물로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⁴¹⁾ 그러나 성종 초기부터는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점차 사대부들에게까지 소비가 확산되어 위세를 과시하는 품목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이처럼 성종이후 士家에서 청화백자가 유행했던 시점은 흥미롭게도 공식 사행에서 청화백자의 유입기록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는 중국산 청화백자가 성종 이후부터는 더 이상 사여나 선물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선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기물이 되었던 것이다. 때마침 조선에서는 광주 관요를 통하여 청화백자의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왕실에서 소비할 청화백자는 관요를 통해 조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왕실이 굳이 중국산 청화백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던 이유가 되었다.

많이 알려진 사료로 세종 30년(1448) 3월 3일, 예종에 전지한 내용 중에 “듣건대 중국에서 청화자기를 금하여 외국의 사신들에게 팔거나 주면 죽음에 이른다 하니, 이후로는 북경과 요동에 가는 행차에 자기를 무역하는 것을 금단하라.” 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⁴²⁾ 이는 사행과정에서 私貿易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이러한 禁斷令의 결과에 대해 관련 연구성과에서는 이후 중국을 통한 청화백자의 공식적인 공급이 어려워졌고, 조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청화백자의 양이 급감했을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⁴³⁾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국내의 유적에서 발견되는 조선 초기의 청화백자들은 成化년간(1465-1487)과 弘治년간(1488-1506) 이후의 것부터 급증하고 있었다.

41) 윤효정, 앞의 논문(2006), 327쪽.

42) 『世宗實錄』 卷119, 30年(1448) 3月 3日條.

43) 윤효정, 앞의 논문(2006), 321쪽.

금단령과 사가에서의 소비증가는 상호 논리적으로 모순된 현상이
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금단령 조치가 일시적으로 유효했
겠지만 그것은 공식사행에 수반되는 사무역에 한해서였을 것으로 판
단한다. 그렇다면 사가의 소비 급증 현상은 사무역보다는 비공식적인
또 다른 루트를 통해 중국 청화백자의 공급이 가능했었다는 가정이
존재한다. 이를 입증한다면 국내에서 출토되는 조선 전기의 중국 청
화백자들이 성화기(1465-1487) 이후 정덕기(1506-1521)까지 많은 빈
도를 보이며 출토되고, 심지어 16세기 후반까지로 추정되는 예들이
존재하는 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 또 청대의 청화백자 유입기록은 전
무하지만, 18세기 이후의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는 것
도 비공식적인 루트의 존재를 설명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비공식
적인 루트에 대하여는 다음 절에서 규명하겠다.

2. 명·청과의 무역 형태와 복건상인의 활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자의 유입은 賜與의 형태나 사신의 進
上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적인 상행위를 통해 유통되고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사여나 진상은 도자기를 주고 받는 주체가 명
확하고 규모는 아니었다. 그에 비해 조선의 사대부집안이나 豪富들
이 사용했던 중국산 청화백자는 분명히 일정한 댓가를 치루고 구입했
던 것이 분명하다. 구입은 원산지로부터 최종 소비처로 이동하는 과
정에서 무역이라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료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치풍조에 따라 중국의 청화백
자를 사용했던 대상들을 무역행위를 통한 것으로 간주하고 명·청의
무역상황과 상인들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朝·明간의 무역 형태와 도자

밝혀진 것처럼 한반도에서 소비된 중국 청화백자는 명·청대의 강서성 경덕진 민요제품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청대 복건성 제요의 제품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제품들이 국내에 들어왔던 과정은 당시의 무역상황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한다. 조선시대의 對明貿易은 태종 3년(1403)에 명이 책봉을 인정하는 金印, 誥命을 하사 받음으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명무역이 활발한 양상을 띠게 된 것은 세종 11년(1429) 金, 銀歲貢이 면공되면서 전개되었다.⁴⁴⁾

조선시대의 대명무역의 형태는 조공에 대한 답례의 의미를 갖는 官무역, 使行을 통해 공인된 왕실의 물자를 조달하는 公무역, 민간상이 명나라로 향하는 사절단을 따라 행하는 私무역, 공인되지 않은 潛(密)무역 등이 있었다. 여기에서 원칙적으로는 조공무역에 의한 관무역, 또는 공무역만 인정되었을 뿐 사무역이나 잠무역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간에는 서로 관련성이 있어서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힘들다.⁴⁵⁾

대명사절의 파견횟수는 태조부터 성종대까지 총 339회가 있었다. 각 왕 치세의 횟수는 태조 56회, 정종 8회, 태종 137회, 세종 198회, 성종 93회로 세종대와 성종대 사이에 파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명은 처음부터 3년 1使(3년에 1번씩 賀正使를 보내는 것) 원칙을 규정하고 지키려 했으나 정종대에 1년 3使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明使의 조선입국 횟수는 태조 원년(1392)부터 인조 12

44) 朴南勳, 「조선초기 대명무역의 실제」, 『관동사학』 제1집, 관동사학회, 1986, 126쪽.

45) 姜龍洙, 「朝鮮時代 對明貿易構造에 관한 研究」, 『産業經濟研究』第8卷 第2號, 韓國産業經濟學會, 1995, 8-10쪽.

년(1634)까지 242년간 186회로 평균 1년 3개월 만에 한 번씩 내방하는 수치를 보여준다. 내방 횟수는 특히 세종 32회, 성종 25회, 중종 39회 등으로 세 왕대에 집중되어 있어 조선 사신의 파견이 많은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이처럼 조선이 사신단의 왕래에 보다 더 적극적이었던 것은 使行 왕래시에 부수적으로 따라붙게 되는 공무역과 사무역에 의한 실리가 높았기 때문이다.⁴⁶⁾

흥미로운 점은 성종대 이후의 사치풍조를 경계한 기록과 실제 국내에서 출토되는 청화자기의 제작시기가 상당수 일치한다는 사실이다(표 6 참고). 이는 국내출토 청화자기들이 무역의 활성화와 직접 관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조선 초기 대명무역 수출품의 중심은 금, 은, 말 등이 중요한 생산물이었으며 이에 대한 댓가로 왕실, 귀족들의 사치성 소비품인 비단과 도자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도자기 유입의 기록은 조선 전기에만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상황을 문헌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 아쉽다.

다음으로 朝·明간의 무역로를 살펴보자. 대명무역로는 해로와 육로가 있었다. 당시 육로로는 한성→평양→의주→압록강→봉황성→연산관→심양→산해관→통주→북경에 이르는 길을 이용하였다.⁴⁷⁾ 또 해로는 육로로 1,900리를 이동한 후, 水路로 3,760리를 이동하였다. 이 길은 한성→의주→의사포(또는 안주 노강진)→철산→단도→등주→북경 루트가 이용되었다.⁴⁸⁾ 교역에서 도자기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포함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육로를 거치는 여정의 여건상 많은 양의 도자기가 이 과정을 통하여 국내로 전해졌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46) 姜龍洙, 위의 논문(1995), 8-10쪽.

47) 魚叔權, 『攷事撮要』 卷7, 67-68쪽(姜龍洙, 위의 논문(1995), 14쪽의 주 18 재인용).

48) 『通文館志』 卷3, 事大(赴京使行)(姜龍洙, 위의 논문(1995), 14쪽의 주 18 재인용).

2) 朝·淸간의 무역 형태와 도자

조선과 청과의 무역은 公貿易과 私貿易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사 무역은 다시 公認사무역과 密貿易(潛貿易)으로 구분이 된다.⁴⁹⁾

정묘호란 이후 청과의 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대청무역은 대명무역과 마찬가지로 사신에 의한 진상이라는 예물교환 형식이 이루어졌다. 청과의 관계 약 250년 동안 使行은 약 664회에 이르렀으며⁵⁰⁾ 1회 來淸人의 수는 공식사절과 일행을 포함하여 300~600명에 이르렀다 한다.⁵¹⁾ 사행무역에서의 이동로는 육상루트가 중심이었다. 국내의 주요 거점지역에는 사신을 위한 使館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포함한 이동경로는 한성→개성→평양→의주→압록강→책문→산해관→통주→북경에 이르는 길을 활용하였다. 이 길은 도합 3,069리에 이르는 긴 거리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무역형태는 17세기 중엽 이후 사행무역과 더불어 청과의 국경지방에 설치된 互市貿易을 통해 이루어졌다. 호시무역은 국가관리의 공무역 형태로 출발하였으나 후에 제약이 해지되면서 사실상 자유무역의 형태를 띠었다. 압록강과 두만강 주변에서 이루어진 호시로는 中江開市, 北關開市⁵²⁾가 있고, 私商人의 밀무역활동에서 유래된 개념인 後市貿易으로는 中江後市, 柵文後市, 團練使後市,⁵³⁾ 瀋陽後市, 會同館後市⁵⁴⁾ 등이 있었다. 후시무역은 17세기 후반에서

49) 姜龍洙, 「朝鮮時代 對淸貿易에 관한 研究」, 『産業經濟研究』 第9卷 第1號, 韓國 産業經濟學會, 1996, 24쪽.

50) 姜龍洙, 위의 논문(1996), 25쪽의 <표> 참조.

51) 震檀學會, 『韓國史 近世後期篇』, 1965, 111쪽.

52) 北關開市는 會寧開市와 慶源開市를 통틀어 부르는 용어이다.

53) 柵文後市에서 밀무역이 심하게 번성하자 조선정부에서 團練使를 파견하여 단속하려 했으나 오히려 부패로 인해 私商人의 두목으로서 밀무역을 한 형태이다.

54) 북경에 도착한 사절단이 기거하는 숙박지를 중심으로 교역하는 형태이다.

18세기 전반에 걸쳐 사신이 청에 갔다오면 동행했던 상인들에 의해 말 1천 마리분이 상품을 싣고 왔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⁵⁵⁾

그런데 사행무역이든 호시무역이든 육로를 활용한 무역과정에서 오고 간 물자를 보면 도자는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다. 주 품목은 명주, 은, 황견, 말안장, 청포 등이 중심으로 그중에 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⁵⁶⁾ 이러한 점에서 조선 후기에 유입된 청의 청화백자들은 육로를 이용한 사행무역이나 호시무역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던 상품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⁵⁷⁾

3) 복건상인의 활동과 도자

조선 초기인 世宗, 文宗대에는 명과의 사행무역이나 사여 등을 통해 중국산 청화백자가 국내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成宗이후 왕실이외에 士家나 民家에서 유행했던 청화백자는 유입량도 대규모였을 것이고 한반도에 들어왔던 주체도 달랐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복건상인의 활동이다.

복건지역은 인구가 많고 농토는 적은 까닭에 식품과 의류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무역이나 상품생산이 발전해 왔다. 상품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복건의 각 지역은 특산물을 기초로 지역 상인들이 성장하였으며 연해의 安平商人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기도 하였다. 상업이 발달했던 연해지역의 도시들에서는 여러 상인집단들

55) 姜龍洙, 위의 논문(1996), 19-43쪽.

56) 전해중,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1950, 85쪽(姜龍洙, 위의 논문(1996), 41쪽의 표에서 재인용 해석).

57) 純祖 7년(1807)년, 중국 요녕성 대련 앞바다의 獐子島에서 潛商(밀수)하다 걸린 의주상인이 거래한 물품중에는 중국자기가 포함되어 있다. 도자기는 육로로 이동할 경우 잘 깨지고 적은 양밖에 이동하지 못하는 단점으로 이처럼 배를 이용한 수송이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 『純祖實錄』 卷10, 7年 9月 21日條.

이 활동하였고 교역물품은 곡물, 차, 黑糖, 白糖, 종이, 면화, 면포, 생사, 비단, 황사, 백사, 가축, 철, 목판, 소금, 磁器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도 많았다.⁵⁸⁾

이처럼 해상교통이 편리한 복건지역에서는 일찍부터 해상무역이 발달해 왔다. 특히 泉州는 송대이래 市舶司가 설치되어 가장 중요한 무역항으로 자리매김하였고 명대 成化 8년(1472), 시박사가 福州로 옮겨질 때까지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위를 누렸다.⁵⁹⁾ 그러나 洪武年間(1368-1398)의 海禁令과 蕃貨의 금지, 이후 황제들의 지속적인 해금 강화정책으로 인해 복건지역의 해안무역은 거의 봉쇄되었으며 정상적인 해상무역은 타격을 입었다. 이에 조공감소, 지방재정 수입, 백성들의 일자리 감소는 오히려 해상 밀무역이 범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成化, 弘治, 正德년간은 당시의 법으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사무역이 번성하였다.⁶⁰⁾

당시 사무역의 중심지는 漳州지역, 泉州府지역, 복주 연안지역, 福寧 등 연해지역의 전역에 걸쳐 있었으며 무역은 10배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으므로 기를 쓰고 해상무역을 시도했다.⁶¹⁾ 사무역의 주체는 권세가와 부유한 집안 사람들로 이들은 거함을 타고 바다로 나가 무역에 종사하였고 嘉靖年間(1522-1566)에는 부패가 극에 달하기도 하였다. 결국 隆慶元年(1567)에 와서는 月港(海澄縣)을 사무역항으로 열고 사무역상인의 출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58) 陳克儉·朴仁川 主編, 『福建財政史』上, 廈文大學出版社, 1989. 81쪽.

59) 李東華, 『泉州與我國中古的海上交通 : 九世紀末~十五世紀初』, 臺灣學生書局, 1989, 239쪽.

60) 최낙민, 「명의 海禁政策과 泉州人의 해상활동-嘉靖年間以後 海寇活動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78, 부산경남사학회, 2011, 103-136쪽.

61) 傅衣凌, 『明代福建海商』, 人民出版社, 1956, 107-113쪽(元廷式, 「明清時代 福建의 商人과 國家權力」, 『明清史研究』 第13輯, 명청사학회, 2000, 48쪽의 주 34에서 재인용).

한편 명·청 교체기의 전란은 해상무역을 파괴하였다. 무역의존도가 높았던 閩南지역은 피해가 컸으며 거대 해상세력이 몰락하면서 자급화를 강화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복건지역의 도자생산이 확대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康熙『寧化縣志』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자기의窯는 泉上里 傅家山에 있었는데 품질이 모두 조잡하여 오직 농가에서만 즐겨 사용하였다. 三藩의 난(吳三桂·尙可喜·耿仲明이 일으킨 난)으로 인하여 경덕진의 도자기 생산이 정지되자 傅山의窯만이 홀로 2,3년 동안 생산하였으므로 일시에 이에 의지하게 되었다”⁶²⁾

이 기사는 경덕진의 전란을 계기로 품질이 떨어지는 이 지역의 자기가 주변 지역에 자기를 공급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즉, 삼번의 난은 복건지역이 자기를 자급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으며 복건도자가 품질이 떨어지고 저렴하지만 후일 중요한 민수용, 수출용 제품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 중기인 康熙 23년(1684) 이후 해금령이 해제되면서 복건상인들은 해상무역의 주체로 다시 등장하였다. 예전처럼 거상의 활동은 거의 없었으나 각 해안지대에는 수천척의 배들이 출항하였고 漳州와 泉州의 상품은 도자기를 포함한 각종 수공업제품이나 상품 작물들이 팔려나갔다. 특히 경덕진의 민요제품은 물론이고 복건지역에서 생산된 德化窯, 漳州窯, 安溪窯, 秀篆窯, 東溪窯, 羅源窯의 제품들은 이 시기에 중국 각 지역의 소비와 해외수출을 위해 선적되었던 것이다.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명·청대의 경덕진 민요산 청화백자와 청대 중기 이후의 복건산 청화백자는 이처럼 끈질긴 복건상인의 활발한 무

62) 康熙<寧化縣志>卷2, 土產志 168쪽(元廷式, 앞의 논문(2000), 58쪽의 주 69에서 재인용).

역활동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朝鮮王朝實錄』에는 中宗대(1506-1544)부터 純祖대(1801-1834)에 이르는 동안 북건인들이 장사하기 위해 來朝하거나 표류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관련 기사들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⁶³⁾ 이는 왕성하게 활동했던 북건인들의 해상무역 상황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출토의 중국산 자기들은 사행에 수반되는 사무역으로 국내에 유입된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주로 북건상인과 같은 무역상들의 행위에 의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3. 국내 유입 중국 청화백자의 의미

국내의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산 청화백자는 중국의 우수한 문물을 선호했던 조선시대 상류층의 기호를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그러나 도자기가 갖는 소비재로서의 기본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문헌기록과 실제 출토유물, 이와 연동하여 국내에서 청화백자가 제작되었던 사실은 국내출토 청화백자가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가 매우 컸음을 알려준다. 앞에서 살펴 본 내용을 토대로 그 의미를 현재의 관점에서 파악해 보자.

첫째, 중국산 청화백자는 조선의 도자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청화백자는 먼저 공식적인 외교관계속에서 값비싼 소비재의 형태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이에 대한 조선의 왕실과 사대부계층의 선호는 결국 이를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광주 관요를 통해 완성시켰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듯, 조선 관요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는 청화백자를 생산하는 것이었다.⁶⁴⁾ 따라서 어렵게 구득한 산화청으로 청화백자 제작에 성공하

63) 『中宗實錄』卷103, 39年 6月 25日條~ 『純祖實錄』卷31, 30年 12月 8日條.

64) 세조 즉위 이후 왕실에서는 백자와 청화백자의 수요량이 급증하였다. 이에 부응

고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제품을 대체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것은 조선의 도자기술사가 진일보하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둘째, 국내에 유입된 중국 청화백자는 일정한 시기동안 위신재의 역할을 하였다. 조선 전기의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처음에 사여품이나 진상의 대상이었던 중국 청화백자는 점차 사대부계층으로 확대되었다. 여러 번의 금지조처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사치를 일삼아 다투어 사용’했던 조선 전기의 정황은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값비싼 외국 수입 명품을 사용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현대 사람들의 심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산 청화백자는 처음에 왕실을 대상으로 유입되었던 귀중품이었으므로 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대부들에게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위신재로서의 역할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수입품의 증대와 양질의 관요산 제품이 유포되면서 많이 상쇄되었지만 적어도 조선 전기에 있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셋째, 중국산 청화백자는 인기있는 무역품목이었다. 중국산 제품은 조선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중기의 일부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무역의 한 형태인 공인무역과 밀무역은 다양한 특산품들을 다루고 있었고 운송루트는 육로보다 주로 해로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전·후기의 다양한 유적에서 출토된 청화백자들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다양성을 갖고 있다. 이들의 주 생산지는 江西省 景德鎮과 福建省 일대로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의 상당수는 북건연안의 무역항을 통해 해상무역품으로 팔려나갔으며 국내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전해졌을 것이다. 조선시대

하여 세종 연간부터 상품 백자 생산이 가능했던 광주에 세조 말경에서 예종 초 사이 사용원의 분원을 설치한 것이다. 김영원, 『조선 전기 도자사』, 일조각, 2011, 55쪽.

에 복건상인들이 내방한 기록들, 그들의 무역 대상지중 하나인 오키나와 출토품이 국내의 출토품과 유사한 점 등은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⁶⁵⁾ 이것은 중국산 청화백자가 상당히 인기있는 무역품목으로 유통되었음을 말해주는 예라 하겠다.

맺음말

지금까지 국내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유형과 특징, 유입양상과 출토품의 의미를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간략히 이를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려 한다.

국내의 여러 유적 출토품과 기록 등을 통해 중국 청화백자의 유입양상과 특징들을 살펴 본 결과, 중국 청화백자는 세종조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양상은 16세기 후반까지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았다. 세종조의 단금령은 그 효과가 일시적이었던 것이었으며, 출토유물과 기록을 비교할 때 성종조부터는 청화백자의 수입이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비공식적인 무역행위를 통해 중국산 청화백자가 폭 넓게 소비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출토품들은 유적의 성격을 불문하고 유사한 시점에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청화백자들이 소비되었으며 주 생산지는 경덕진과 복건지역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나 크게 두 지역의 청화백자가 유입되는 시점은 달라 경덕진 민요제품들은 조선 중기의 일정한 시기를 제외하고 전 기간에 걸쳐 유입되었던 반면, 복건제품들은 18세기 이후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 출토 중국 청화

65) 那覇市立壺屋焼物博物館, 『陶磁器に見る大交易時代の沖繩とアジア』, 沖繩縣那覇市教育委員會, 1998.

백자의 생산지는 경덕진 이외에 복건지역의 제품도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소비된 중국산 청화백자들은 조선 초에 왕실로 전해진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무역을 통해 해로로 전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청화백자의 유입은 사행을 통한 육로로의 사무역도 있었겠지만 그量は 한정되었다고 보았으며, 대부분은 복건상인들의 왕성한 무역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명·청대의 무역형태를 분석하고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복건상인들의 다양한 방문기록과 오키나와 등에서 유사한 양식의 중국산 청화백자가 확인되는 것에서 찾았다.

한정된 지면을 통해 고민했던 생각들을 풀어 내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그러나 종전의 해석에서 조금 더 진전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위안으로 삼고 미진한 부분은 또 다른 기회를 통해 소명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靑畫白磁(靑花白磁), 景德鎮窯, 福建省, 貿易陶磁, 福建商人

(논문투고: 2012.5.21/ 논문심사완료: 2012.6.6/ 논문게재 확정일: 2012.6.9)

참고문헌

- 『攷事撮要』, 『朝鮮王朝實錄』, 『通文館志』
- 강경숙,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아트, 2005.
- _____, 『韓國陶磁史』, 예경, 2012.
- 姜龍洙, 「朝鮮時代 對明貿易構造에 관한 研究」, 『産業經濟研究』 第8卷 第2號, 韓國産業經濟學會, 1995, 5-22쪽.
- _____, 「朝鮮時代 對淸貿易에 관한 研究」, 『産業經濟研究』 第9卷 第1號, 韓國産業經濟學會, 1996, 19-43쪽.
- 京畿文化財團 京畿文化財研究院·京畿都市公社, 『汶山 堂洞里 遺蹟-문산 LCD지방산업단지(당동지구) 문화재 시·발굴조사-』 본문편, 2009.
- 國立中央博物館, 『廣州郡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 報告書-道馬里 1號 窯址-』, 1995.
- 金美景, 「19世紀 朝鮮白磁에 보이는 淸代 磁器의 影響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
- 金英媛,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中國 陶磁의 內容과 性格」, 『中國陶磁』, 국립중앙박물관, 2007, 356-379쪽.
- _____, 『조선 전기 도자사』, 일조각, 2011.
- 김은경, 「V. 고찰, 나. 축구장·야구장 출토 동국 도자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부지 발굴조사 동대문 운동장 유적』 I 본문편, 2011, 442-450쪽.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마도해역 탐사보고서』, 2011.
- 朴南勳, 「조선초기 대명무역의 실제」, 『관동사학』 제1집, 관동사학

회. 1986.

-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 일지사, 2000.
- _____, 「17-18세기 동아시아 도자기류사 연구」, 『美術史學研究』 第232號, 韓國美術史學會, 2001. 131-155쪽.
- _____, 「皇帝·文人·景德鎮-清朝 康·雍·乾期 青花白瓷 研究」, 『美術史學』 제22호, 미술사교육학회, 2008, 295-326쪽.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종묘광장 인근유적 발굴조사-5과현장설명회 (회동·제생동천, 건물지)-」, 2010.10.19.
- 서울특별시·재단법인 중원문화재단연구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부지 발굴조사 동대문 운동장 유적』 I 본문편, 2011.
- 元廷式, 「明清時代 福建의 商人과 國家權力」, 『明清史研究』 第13輯, 명청사학회, 2000, 37-71쪽.
- 윤효정, 「朝鮮 15·16세기 靑畫白磁의 製作과 使用-문헌자료와 요지 출토품을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第250·251號, 韓國美術史學會, 2006, 315-360쪽.
- 李炫姪, 「朝鮮 前期 白磁에 보이는 明代 磁器의 影響」,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7.
-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韓國道路公社, 『廣州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查報告-樊川里 5 號·仙東里2,3號-』, 1986.
-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查報告展-附 廣州牛山里9號窯址 發掘調查報告-』, 1993.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경기도 광주시, 『廣州 樊川里 9號 朝鮮白磁窯址 발굴조사보고서』, 2007.
- 장효진, 「中國 靈芝草花文 靑畫白磁의 流行과 傳播: 18-20世紀初 朝鮮과 日本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재단법인 기호문화재연구원·경기고속도로(주), 『華城 臥牛里 遺蹟 I』, 2009.

재단법인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육조거리 유적』, 2011.

재단법인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군기시터 유적』, 2011.

(재)한울文化財研究院, 「종로 청진구역 제5지구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0.

전승창, 「조선초기 명나라 청화백자의 유입과 수용 고찰」, 『美術史學研究』 第264號, 韓國美術史學會, 2009, 35-62쪽.

전해중,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1950.

震檀學會, 『韓國史 近世後期篇』, 1965.

최낙민, 「명의 海禁政策과 泉州人의 海上활동-嘉靖年間以後 海寇活動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78, 부산경남사학회, 2011, 103-136쪽.

韓國文化財保護財團·韓國土地公社, 『淸州 龍岩遺蹟』 (I)(II), 2000.

호암미술관, 『朝鮮前期國寶展-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2)』, 1996.

方李莉, 『景德鎮民窯』, 人民美術出版社, 2002.

福建省博物館, 『漳州窯』, 福建人民出版社, 1997.

徐本章, 「式談德化窯青花磁裝飾藝術及其影響」, 『德化磁研究文集』, 華星出版社, 1993, 265-267쪽.

王莉英編, 『中國陶瓷全集』 12 明(上), 錦繡出版社, 2001.

熊寥, 『中國歷代青花畫典(人物, 動物卷)』, 中國美術學院出版社, 1995.

李東華, 『泉州與我國中古的海上交通：九世紀末~十五世紀初』, 臺灣

學生書局, 1989.

李正中·朱裕平, 『中國古瓷銘文』, 山東美術出版社, 2006.

張 柏, 『中國出土瓷器全集』 7 江蘇·上海, 科學出版社, 2008.

傅衣凌, 『明代福建海商』, 人民出版社, 1956, 107-113쪽.

陳建中, 『德化民窯青花』, 文物出版社, 1999.

陳克儉·朴仁川 主編, 『福建財政史』 上, 厦文大學出版社, 1989.

那霸市立 壺屋燒物博物館, 『陶磁器に見る大交易時代の沖繩とアジア』, 沖繩縣那霸市教育委員會, 1998.

海のシルクロードの出発点 “福建” 展開催實行委員會, 『東アジアの海とシルクロードの據点 福建-沈沒船, 貿易都市, 陶磁器, 茶文化-』, 2008.

The Character and Meaning of excavated China's Blue and White Porcelain in Korean Peninsula

Lee, Jong-mi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racter, time and place of products of excavated China's blue and white porcelain in Korea peninsula and to know what surroundings made those porcelain consumpt in Korea. For that aim, first of all, we want to grasp the character, time and place of products of excavated China's blue and white porcelain in Korea peninsula, especially in kiln sites, tomb sites, temple sites, consumption sites in Hansung-bu. As a result of it, we can see that China's blue and white porcelain are chiefly excavated in the capital region and the time of those porcelain of Ming dynasty is grasped from middle years of 15th century to 16th century and of Qing dynasty is grasped after 18th century. And we can see also that main place of those porcelain is Jingdezhen nongovermantal kiln, but some porcelain of Qing dynasty was produced in Fujian Xing coast kilns. Jingdezhen was a famous and prosperous porcelain producing place from the last years of Yuan dynasty to the last years of Qing dynasty. But, after Ming dynasty, the porcelain of Fujian Xing kilns is also exported to world.

The reason of continual incoming of Jingdezhen porcelain to Korean peninsula is preference on China's highest class porcelain. The demand of China's blue and white porcelain was increased greatly in the late years of Joseon dynasty. In the same time, lower class porcelain of Fujian area satisfied the demand of common people by the active trade of Fujian merchants. Till now, the place of products of China's blue and white porcelain in Korea peninsula has been known Jingdezhen. But if we focus to the archeological materials, can find some porcelain of Fujian area.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blue and white porcelain of Fujian area was consuption in Korean peninsula as a periodical surroundings of the late years of Joseon dynasty.

Key Words : Blue and White Porcelain, Jingdezhen Yao(景德鎮窯),
Fujian Xing, Trade Ceramics, Fujian merchant

